

일본군‘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

: 증언집, 사진집,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지영 _ 대전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목 차 —

- I. 들어가며
- I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 III. “일본군‘위안부’”
- IV. 여성가족부의 구술·증언 연구사업
- V. 나오며

국문초록

본 글은 1991년 김학순의 공개 증언 이후 약 30년간에 이르는 일본군‘위안부’의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해 고찰하고, 피해자 구술·증언 연구의 궤적을 그려냄으로써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산된 증언집과 사진집,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위안부피해자 구술·증언 관련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분석 결과, 일본군‘위안부’ 구술 증언 관련 연구는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용기와 조사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어왔다. 첫째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전체상뿐 아니라, 증언자들의 귀국 이후의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둘째는 피해자들이 몰개성적이고 정형화된 피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의 개성을 지닌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인정을 획득하고 지역 사회와 관계맺음을 해나갔다는 것을 알게 했다. 셋째는 증언집 발간과 증언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구술·증언의 1차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기존의

증언집에서 사상되었던 증언자의 생애를 복원하고 열린 해석을 위해 기여할 귀중한 자료이다. 한편 과제도 남아있다. 첫째는 광복절, 3.1절, 기림의날 등을 기해 단발성 행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무리하게 구술·증언 연구를 구상하고 추진해왔다. 단발성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축적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피해자상의 정형화와 물리력에 의한 강제연행의 주장이 미치는 영향의 견고함이다. 그것은 구술·증언에 대해 사료의 공백을 메우고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역사 사료로서의 의미 부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고함은 다양한 구술·증언 연구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제 피해 구술·증언과 자료는 집대성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구술·증언 연구의 심화를 위해 현재 비공개 처리되어있는 여성가족부의 구술·증언 연구사업의 결과는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제어

일본군‘위안부’, 구술·증언 연구, 증언집, 생애사

1. 들어가며

본 글은 1991년 김학순의 공개 증언¹⁾ 이후 약 30년간에 이르는 일본군‘위안부’(이하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위안부 문제 연구는 피해자의 구술·증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위안부 문제 관련 사료가 결여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구술·증언은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정초되었고 위안부 피해의 진상과 일본의 국가책임 규명이라는 목적 하에 수집, 채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이 <한국정신대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²⁾이다. 연구소와 정대협은 김학순 증언 이후 2004년까지 『강제로 끌

1) 김학순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한국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였고, 8월 14일은 2018년에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되었다.

2) 1943년 이화여전 1학년 재학 당시 근로정신대의 노무동원 현장을 직접 경험했던 윤

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총 6권의 증언집³⁾과 중국 거주 피해자에 대한 현지조사의 결과와 증언을 담은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 1권과 제2권, 총 2권의 조사집⁴⁾을 출간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⁵⁾는 2001년 발족 이래 2017년까지 위안부 구술 증언 과련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24권의 결과보고서를 생산하였는데 상기와 같은 선행연구의 형식과

정옥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1970년대 말 일본 오키나와(沖縄)에 거주하고 있던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에 관한 신문보도를 접하고, 1980년 12월 배봉기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찾기와 위안부 문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윤정옥 교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대표였던 이효재 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주선으로 1970년대부터 일본인의 한국기생관광 등 성매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던 <한국교회여성연합회>를 만나면서 한국 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신대연구소>는 위안부 문제 연구를 위해 1990년 7월에 윤정옥 교수가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만든 <정신대연구회>로 시작하였다. 이어 운동 차원에서 1990년 11월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반대하여 한일합의 무효화와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과 2018년 7월에 통합하여 <일본군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기억연대)가 되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한울아카데미, 2014, p. 16.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https://womenandwar.net/kr/visionnmission/>)

- 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편,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0;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일본군'위안부'증언집 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도서출판 여성과 인권, 2004.
- 4)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0년 후의 증언』, 한울, 1995; 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 5) 2001년에 여성부가 신설되었는데 2005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 업무가 이관되어 여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용을 기반으로 확대, 발전해왔다. 또한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등 지역의 피해자 지원 단체, 사진작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서도 증언집이나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포토에세이 등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30년간 증언집, 사진집, 연구보고서 등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 온 것에 비해 이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 우선 피해자와 증언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고, 조사 수집된 증언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 많아 연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구술·증언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사료로서 자리매김 되어, 연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오인하는 데서 기인한다. 위안부 구술·증언 연구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연구소와 정대협이 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4권의 증언 조사에 직접 참여했던 양현아의 연구가 있다. 양현아는 제4권에 수록된 9명의 증언에 대해 피해자로만 고정되어 있는 피해자의 주체성을 개방시켜 이들의 복합적 주체성을 재현하고자 하였고, 위안부 피해란 이들이 살아온 체험의 전체성, 주체성의 한 측면이며 이들은 피해자이지만 그 피해 속에서 힘을 발휘하며 살아온 피해/생존자들이라고 새롭게 호명하고 있다.⁶⁾ 또한 양현아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1권부터 제4권까지의 증언집을 대상으로 식민지 이후에도 지속된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신체, 정신, 사회관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 피해자의 증언을 듣는 것이 공식사죄와 보상의 ‘밖으로부터의’ 정의 구축과 피해자를 핵심으로 하는 ‘안으로부터의’ 정의구현의 방법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⁷⁾ 한편 『강제로 끌려간

6)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역사』 60집 1호, 2001, pp. 60-96.

7)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1권부터 제4권을 대상으로 인식론적, 방법론적 차원에서 고찰한 김수진의 연구도 있다. 김수진은 그동안의 증언 연구가 생존자의 주체성을 한 많은 피해자로 국한하는 지배적 시선에서 서발턴(subaltern) 여성의 발화로 인식하는 전환을, 피해/가해라고 하는 법적 책임의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와 기억의 관계가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식민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개인적, 집합적 트라우마를 성찰적으로 극복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⁸⁾

본 글은 이러한 주요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며, 연구소와 정대협이 출간한 6권의 증언집과 2권의 조사집, 그리고 여가부가 발주했던 구술·증언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 24권 중 공개되어있는 7권과 시민모임에 의해 발간된 역사의 증언 시리즈 총 5권, <기독교여성살림회>의 증언집,⁹⁾ 사진작가 이토 다카시(伊藤孝司)와 안세홍의 사진집¹⁰⁾을 대상으로 피해자 구술·증언 연구의 궤적을 그려냄으로써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쳐 왔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증언집은 피해자의 증언 전체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증언 조사를 한 조사자 또는 조사자 집단에 의한 재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은 발화 시작부터 종료까지 시간적 순서에 맞춰 연대기적으로 논리 정연한 이야기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구술·증언이 그렇듯이 발화자가 체험 기억을 소환하면서 때로는 연대를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가장 이야기 하고 싶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본 글은 증언집을 분석하는데 있어 증언의 내용이나 진위 여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증언집의 재현 방

22권 3호, 2006, pp. 133-167.

8)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여성학논집』 30집 1호, 2013, pp. 35-72.

9) 기독교살림여성회, 『전북지역 일본군'위안부'생존자의 이야기』, 봉천, 2004.

10) 이토 다카시 저, 장창종 역, 『중군위안부 : 남북 중군위안부 27인의 증언』, 눈빛, 1997. 안세홍, 『겹겹-중국에 남겨진 일본군'위안부'이야기』, 서해문집, 2013.

식, 재현의 주체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연구소와 정대협이 발간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부터 검토하겠다.

II.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1권은 1993년에 출간되어, 김학순, 김덕진, 이영숙, 하순녀, 오오목, 황금주, 문필기, 이용수, 이옥분, 문옥주, 이순옥, 이상옥, 이득남, 이용녀, 김태선, 박순애, 최명순, 강덕경, 윤두리, 총 19명의 증언을 담고 있다. 증언집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1권은 군위안부정책을 일본의 조선침략전쟁의 집약으로 간주하고 피해자는 단순히 조선여성이기 때문에 당한 것이라는 인식 하에 강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 사실의 입증을 목적으로 피해자 증언을 채록하였다.¹¹⁾ 제1권의 시도는 1995년에 발간된 첫 번째 중국 현지 조사집 『50년 후의 증언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로 이어진다. 무한 지역의 위안소 조사보고와 더불어 일본 패전 후 귀환하지 못한 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홍강립, 홍애진, 하군자, 이봉화, 임금아, 장춘월, 박필연, 백넙데기, 박막달, 정학수, 총 10명의 증언이 실려 있다. 이 두 권의 증언집의 특징은 최초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집으로서 이후 이어지는 증언집 발간의 전형이 되었고, 증언자들의 기억과 구술 중에 앞뒤를 생략하고 ‘위안부 경험’을 중심으로 조사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언은 우리에게 동원 방법과 위안소의 관리 실태, 위안소 생활 등 군위안부의 실상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증언자 각자의 개성과 생애사의 다양한 측면들을 소거하는 동시에 피해자

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정신대연구회(1993), p. 6.

상과 위안부 피해를 정형화한 한계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증언의 정리형식이 여성중심적이지 않고 증언자들을 대상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제2권은 1997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증언집에는 진경평, 박두리, 강무자, 손판임, 김복동, 김보선, 박연이, 김춘자, 배죽간, 최일례, 여복실, 전금화, 최정례, 박순희, 김은진, 총 15명의 증언이 실렸다. 제1권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제2권에서는 일관성을 고려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증언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복원하려는 데 역점을 두고 귀국 이후의 생활도 그대로 실기로 했다.¹²⁾ 한편, 1930년대 초부터 연행과 강도 높은 성 착취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근로정신대 제도¹³⁾를 위안부 연행의 도구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1997), pp. 251-253.

13) 윤명숙에 따르면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는 남녀의 구별 없이 쓰이는 말이며 특정 단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은 1940년 11월 13일자 『매일신보』에 “농촌정신대”의 결성에 관한 기사가 나면서부터였다. 또한 “정신대”라는 말은 “부인농업정신대”, 의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인술보국정신대”, “어업정신대” 외에 문화, 상공, 보도, 운수, 금융, 산업 등 32개 단체로 결성되었던 “반도홍보정신대”등과 같이 여성 동원을 포함하는 다양한 인적 동원에 쓰였다(윤명숙, 2015,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pp. 382-383). 이와 같은 정신대가 여성의 노무동원에 사용된 것은 일본이 1943년에 전시 상황의 악화로 남성의 징병 연령을 19세로 인하하는 한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여성을 대규모로 동원하면서이다. 일본은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 국민총동원법과 1939년 국민징용령을 통해 전시동원체제를 확립했지만 여성의 노무동원에는 신중했다. 여성의 출산기능과 가족제도의 보호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1년 국민노동보국협력령이 공포되면서 14세~40세의 남성 이외에 14세~25세의 미혼 여성도 매년 30일 이내의 노동봉사가 의무화되었는데 이때 결성된 것이 노무보국대이다. 1943년에는 여성에 대한 노무동원이 한층 강화되어 여자근로정신대가 결성되었다. 그때까지 노무보국대나 여자근로정신대는 모두 지원제였으나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강제적인 징용으로 변화했다. 여자정신근로령 하에 12세~40세의 독신 여성은 학교, 동창회, 부락회, 부인회 단위로 결성되어 군수공장에 우선 배치되었다(胡澎, 2018, 『戰時體制下日本の女性団体』, こぶし書房, pp. 215-221). 조선에서는 여자정신근로령은 적용되지 않았으며 총독부의 관 알선과 일선 학교 교장, 교사 등의 인솔로 모집되었다. 자료상으로는 도야마현(富山県) 후지코시공장(不二越工場)으로 약 1,100명, 도쿄마사방직누마즈공장(東京麻糸紡績沼津工場)으로 약 300명 이상, 나고야(名古屋)의 미쓰비시항공기도투쿠공장(三菱航空機道徳工場)으로 약 300명 이상이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

로서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 정부가 피해자를 비밀리에 개별 접촉하는 기형적 방식으로 ‘국민기금’¹⁴⁾을 지급하는 것을 통해 피해자는 물론 우리 국민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돈으로 자존심과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시기에 겪은 우리의 피해의 경험을 정리한 이 증언집이 지금의 이 혼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비전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간 목적을 밝히고 있다.¹⁵⁾ 제2집은 피해자의 귀국 이후의 삶에 대한 구술도 수록하는 등 제1집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려 했으나 강제연행의 입증과 ‘국민기금’에 대한 대응이라는 증언 채록의 규범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제3권은 1999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증언집에는 훈 할머니¹⁶⁾, 김소란, 김군자, 김옥주, 김은례, 심달연, 조순덕, 최화선, 황순이, 김끝순, 조남례, 하영이, 신현순, 김유감, 총 14명의 증언이 담겨있다. 일본 정부가 문서자료를 전부 공개하지 않은 채로 서둘러 이 피해의 역사를 결말지으려 하는 차에 한

된 것으로 나타났다(高崎宗司, 1999, 『“半島女子勤勞挺身隊”について』, 『慰安婦問題調査報告・1999』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 pp. 56-57).

- 14) 전후 50년을 맞이해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은 태평양 전쟁 중 일본에 의하여 강제로 위안부로 동원되어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한 보상 사업과 여성의 명예와 존엄 등에 관련된 현재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1995년 7월에 재단법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했다. 국민기금은 사업의 실시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총리의 사죄편지, 이사장의 편지와 함께 국민 모금으로 조성된 보상금 200만 엔과 정부자금으로 의료복지지원(120만 엔~300만 엔)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필리핀, 한국, 대만, 네덜란드의 피해자에 대해 2002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의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종료됨으로써 국민기금은 해산했다(デジタル記念館「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https://apjif.org/data/wada.comfort%20women.pdf>). 국민기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국민 모금에 의한 보상금 지급 등등 사업의 한계를 비판하며 한일 양국은 물론 아시아 피해자들의 연대회의인 아시아연대회의에서도 찬반 논의가 이어졌으며 한국에서는 정대협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기금은 피해자 간, 지원단체 간, 한국 사회 전체에 국민기금을 둘러싼 의견 대립과 갈등을 낳았다.
- 1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한국정신대연구회(1997), pp. 6-13.
- 16) 본 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할 때 할머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원저에서 인용할 경우만 원저의 표기대로 할머니를 사용하기로 한다.

사람의 증언이라도 더 확실히 정리해야 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며, 증언 기록에 대해 일본 정부와의 대결을 위한 것이며 후세에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제3권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바로 증언 정리 문제이다. 제1권과 제2권 두 권의 증언집에서는 1인칭 화법의 문어체로 정리되었는데, 이 정리된 증언이 역사적 자료를 만드는 어느 정도 가공된 결과물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며 제3권에서는 피해자들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데 충실하려 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투리와 존댓말, 반말 등 그대로 구어체로 옮겨졌다.¹⁷⁾ 좌담회 기록을 실은 것도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증언 정리 작업에 참가한 연구원들의 대화를 통해 증언의 중요성, 위안부 문제의 성격, 피해자들의 정서 등을 독자에게 알려려고 했다.¹⁸⁾ 또한 처음으로 증언의 조사지침도 실었다. 이 조사지침은 제1집부터 사용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신고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제공되기도 했다.¹⁹⁾ 그리고 남양군도 파라오에서 겪었던 군생활과 위안소 경험을 기고한 홍종태의 증언도 실고 있다.²⁰⁾ 그러나 제3집도 여전히 증언에 있어서 ‘위안부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이라는 강한 목적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겠다.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기록으로서의 증언집 발간은 개인 차원에서도 진행되었다. 전후에 태어났고 식민지 지배나 침략전쟁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웠다는 사진작가 이토는 1991년 10월부터 한국, 북한, 대만, 필리핀 등지를 모두 12차례 답사하며 만난 위안부 피해자들 강덕경, 강순애, 김경순, 김대일, 김분선, 김순덕, 김영실, 김학순, 노청자, 문옥

17)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pp. 5-9.

18)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pp. 335-363.

19)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pp. 383-387.

20)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1999), pp. 365-381.

주, 문필기, 배족간, 심달연, 심미자, 윤순만, 이정생, 이귀분, 이복녀, 이순교, 이양근, 이옥선, 이용녀, 이용주, 최선순, 하순녀, 황금주 등등 27명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수록하였다.²¹⁾ 그의 시선을 통해 『중군위안부 : 남북 중군위안부 27인의 증언』에 담긴 사진들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신체의 상흔을 드러내며 증언과 더불어 위안부 문제의 범죄성을 고발하고 있다. 이토의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인식이나 사진 증언집의 발간 목적은 상기 증언집과 같은 맥락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점은 위안부 피해를 한국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1996년 <나눔의집>을 처음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만난 사진작가 안세홍은 2001년에 전쟁이 끝나고도 귀환하지 못한 채 중국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7차례, 2012년에 2차례 중국 현지 조사를 통해 김순옥, 김의경, 박대임, 박서운, 박우득, 배삼엽, 현병숙, 8명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담았다.²²⁾ 안세홍의 포토 에세이 『겹겹-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에는 끌려감, 감금,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폭행, 그리고 버려짐의 고통의 언어와 모습으로 피해자상이 담겨있다. 이토 다카시와 마찬가지로 안세홍의 시선도 한 많은 피해자,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해 한국 내 피해자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어야했던 한국 밖의 피해자상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겹겹에서도 위안부 피해를 한국만의 피해가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당한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21) 이토 다카시 저, 장창종 역(1997).

22) 안세홍(2013).

Ⅲ. “일본군‘위안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4권은 2001년에 정대협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법정)²³⁾ 한국위원회 증언팀(이하 증언팀)이 출간한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이다. 2000년법정을 위한 진상규명 활동의 일환으로 증언팀이 구성되었다. 피해자 가운데 증언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60여 명으로, 증언팀은 미증언자들에 대한 조사 차원에서 결성되었으며 특히 2000년법정을 위한 증언 자료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²⁴⁾ 이 증언집에는 김화선, 김창연, 한옥선, 김영자, 최갑순, 정윤홍, 윤순만, 김복동, 안법순, 총 9명의 증언이 수록되었다. 기존의 증언집과는 달리

23) 일본에서 위안부 관련 소송은 결국 최고심에서 기각되거나 패소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쟁범죄를 재판한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도 여성폭력을 관할권의 대상으로 명기한 성과는 크지만 로마규정 채택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의 대상이 아니어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다. 위안부 문제를 국가도, 국제기구도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는다면 세계시민의 손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개최된 것이 바로 2000년법정이다. 1997년 도쿄에서 세계 20개국 40명의 참가자가 모여 개최한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국제회의>를 계기로 <국제바우넷(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Network)>이 발족되었고 그 이듬해에 조직된 것이 <일본바우넷>이다. 정대협과 <국제바우넷>, <일본바우넷>이 연대하여 2000년법정의 개정을 이끌었다. 2000년법정은 북한과 공동검사단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법적 실효성이 없는 세계시민법정이지만 2000년법정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로 상징화될 수 있었다. 2000년법정은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소추하지 못했던 히로히토(裕仁) 천황을 포함해 10명을 기소하고 전원에게 ‘인도에 반한 죄’를 적용하여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묻은 것이다. 총 30개국으로부터 1,000명 이상이 참여한 2000년법정은 95개 해외 언론사에 의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戦争と女性への暴力日本ネットワーク, 『女性国際戦犯のすべて—慰安婦被害と加害責任』,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2006). 12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2000년법정은 여성폭력 피해국의 활동가와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세계 유수의 법률가들이 판단을 내린 세계시민법정의 성공적 전례가 되었다.

2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2000), p. 11.

제4권은 증언의 의의를 새롭게 부여하고 증언에 대한 열린 해석의 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제4권은 새로운 <면접태도>와 <질문지>를 구성했는데, 이것은 증인의 위안부 기간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포괄한다는 점, 사건 자체가 아니라 증인이 거기에 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면접의 주도권이 면접자가 아니라 말하는 생존자 증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조사가 묻기에서 듣기로 넘어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증언자들의 구술에서는 정형화된 위안부의 모습을 찾기 힘들다며 증언자들의 기억과 구술 증에서 ‘위안부로서의 경험’ 중심으로 재현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증언자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와 그들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주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시선을 개방시키고자 했다. 특히 기존의 증언에 대한 입장과 다른 점은 말을 사실 그 자체나 진실로 환원하는 경험주의적 방법론, 한편 ‘입증된 사실’에 부합하는 말만 타당한 증언으로 채택하여 가필하는 실증주의적 방법론, 양자 모두에 대해 거리를 두고자 했으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경합하여 온 여성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논쟁 구도와는 조금 다른 층위에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 증언집은 세계체제와 한국사 속에서 하위주체인 생존자 여성을 통해 역사적 지식을 복원, 생산, 확장하고자 하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²⁵⁾

제5권은 2001년에 출간되었으며 이 증언집에는 신경란, 서복순, 김정순, 이금순, 윤애자, 이후남, 하복향, 양정순, 이양근, 총 9명의 증언이 실렸다. 지금까지 증언집을 낸 것은 피해자들의 경험과 위안부 실상을 드러내는 일이었으며, 부담이었던 것은 자칫 일본 우익들에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

2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2000), pp. 16-29.

해야 하는 일이었다²⁶⁾고 밝히고 있어 여전히 일본에 대한 운동 목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제5권에서는 피해자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경험의 진실에 주목하려 했고 증언자의 느낌과 생각을 중시했다. 또한 이 증언집에는 조사자와 증언자의 소통의 결과로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질문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²⁷⁾

지금까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사실의 입증을 목적으로 ‘위안부 경험’을 중심으로 면접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현됐던 방식에서 증언자의 다의적이고 다성적인 목소리와 그들을 구성하는 다층적인 주체성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시선을 개방시키고자 했던 변화는 2000년대 접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2000년대 이후 나타난 구술·증언 연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구소와 정대협이 증언집에서 나타난 변화부터 검토하도록 한다. 우선 정대협과 연구소의 공동연구의 종료와 조사 연구자의 세대교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대협과 연구소는 증언집 제5권까지 공동으로 출간했으나 2003년에는 연구소가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를, 2004년에는 정대협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이 증언집 제6권 『일본군‘위안부’ 증언집』을 간행한다.

2003년에 출간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는 1997년 캄보디아 훈 할머니에 대한 보도로 해외 생존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면서 〈경남 정신대문제대책을 위한 시민연대모임〉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길림성 및 흑룡강성, 북경, 상해 및 무한, 산둥성 등 중국 거주 피해자들에 대한 추

2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한국위원회 · 한국정신대연구소(2001), p. 12.

2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한국위원회 · 한국정신대연구소(2001), pp. 14-15.

가 조사를 실시한 조사집이다. 이 제2권에는 김순옥, 지돌이, 이광자, 조운옥, 이옥선, 하옥자, 강일출, 문명금, 박옥선, 박서운, 이수단, 이귀녀, 배삼엽, 현병숙, 박우득, 김의경, 박대임, 총 17명의 증언과 중국 석문자 위안소 답사기, 운남성 전서 지역 위안소 조사보고서가 실렸다.²⁸⁾

공점엽, 김화자, 정서운, 강일출, 석순희, 이옥선, 임정자, 노청자, 장점돌, 김봉이, 김순약, 길원옥, 총 12명의 증언이 채록된 증언집 제6권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은 제4권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며 구술·증언 연구의 기본 프레임을 재구성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강세성, 민족주의와 여성주의, 용어 등의 문제를 다루며 기존의 증언집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꾀하고 있다.

첫 번째는 증언집의 명칭을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가 아닌 “일본군‘위안부’ 증언집”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²⁹⁾ “강제로 끌려간”이라는 규정은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위안부”를 공식 기억으로 만들었으며 이 공식 기억과 사적 기억이 균열을 일으킬 때 개인의 기억은 금기의 기억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러한 규정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화시킴으로써 가부장제와 성매매 문제를 위안부 문제의 한 축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다양한 피해 여성들의 경험을 배제시킨다며 “강제로 끌려간”이라는 수식어를 버리고, 그동안 민족담론의 틀에서 배제되었던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로 재구성하고자 했다고 변화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둘째는 민족주의가 위안부 문제를 우리 사회에 빠르게 공론화시킨 주역이었지만 민족주의의 범주 안에서만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 의미화하면서 일본의 망언에 대해 “위안부는 매춘부가 아니라 순결한 처녀들이었다”, “위안부의 동원 과정에서 반드시 강제성이 있었다”라

28) 한국정신대연구소(2003).

29)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2004).

고 대응함으로써 위안부 문제를 협소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전쟁수행을 위해 설치한 위안소에서 여성들이 지속적인 성폭력을 겪으며 인권유린을 당했다는 사실에 있다며, 위안부의 범주는 생존자들의 경험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 속에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셋째는 할머니로 호명되었던 구술자들을 어떻게 불러야하는가의 문제이다. 할머니라는 호칭에서는 친근함이 묻어나오고 편안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할머니는 힘없고 무성적이며 타인을 위해 무엇이든 양보해야할 것 같은 사람으로 이미지화되어 구술자들을 고정된 이미지로 집단화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구술자의 호명은 통일하지 않고 기본 이름을 쓰거나 그녀로 지칭했고, 할머니라고 호명하기를 주장하는 참여자는 사용하였다. 넷째는 증언집이 일본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찰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위안부 누드영상집'파문을 거론하며 국가가 주도한 성폭력까지도 상품화하면서 여성의 고통을 은밀하게 즐기는 한국 사회의 음란한 시선에 대해 적극적인 성찰과 비판을 요구하고 있다.³⁰⁾ 이러한 우리 사회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공허한 울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한다.³¹⁾

2000년대 이후 나타나는 구술·증언 연구의 또 다른 변화로는 연구 주체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1993년부터 시작된 정부 피해등록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언 채록과 새로운 피해자 발견을 위한 현지조사 차원에서 연구소와 정대협이 중심으로 추진해왔다면 정대협과 연구소 이외의 단체나 활동가들도 적극적으로 증언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30) 이러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정희진, 「위안부 누드」의 지배 에로티시즘의 정치학,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05, pp. 82-86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2004), pp. 13-26.

1998년부터 전북지역에 생존해있는 위안부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가져오며, 여성평화운동을 하고 있는 <기독살림여성회>는 김순희, 진화순, 박순례, 최선순, 이양근, 양점순, 오오목, 7명의 삶을 녹취해 그들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기 위해 증언집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를 출간했다. 이 증언집은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계승하며 한국 사회에 공통분모로 되어진 위안부 여성의 정형성을 탈피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피해 여성들의 삶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첨가했으며 지역 사회와 피해자의 소통의 과정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들의 삶이 다양하게 드러나기를 바랐다.³²⁾

이 밖에 대구를 지역적 기반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전개해온 시민모임도 역사의 증언 시리즈를 간행했다.³³⁾ 2004년 훈 할머니에 이어, 2005년 변역본으로 문옥주, 2007년 조윤옥, 2008년 김순악, 2009년에 김옥선의 생애사를 구술을 바탕으로 엮어냈다. 시민모임의 역사의 증언 시리즈는 결손된 문헌 자료를 대체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증언을 채록하던 것에서 개인의 생애사로 시선을 옮겨오며 피해자들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생애사를 들려주고 남기기 위해 구술을 이야기화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32) 기독살림여성회(2004), pp. 16-19.

33)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 강제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 훈 할머니』(역사의 증언 1), 아름다운 사람들, 2004; 모리카와 마치코, 『버마전선 일본군 ‘위안부’ 문옥주』(역사의 증언 2), 아름다운 사람들, 2005; 안이정선, 『가고싶은 고향을 내 발로 걸어 못가고: 일본군 ‘위안부’ 조윤옥』(역사의 증언 3), 아름다운 사람들, 2007;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 ‘위안부’ 김순악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역사의 증언 4), 도서출판 일일사, 2008;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 박을라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옥선 증언 채록집』(역사의 증언 5), 도서출판 춤, 2009.

IV. 여성가족부의 구술·증언 연구사업

이러한 구술·증언 연구의 변화 속에서 여가부는 어떠한 구술·증언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는가.

여가부의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사업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발주 및 진행되어왔다. 1단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로 총 5개의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5개의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 결과보고서 중 2006년에 제출된 『중국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 외에는 모두 공개되어있다.

여가부의 구술·증언 관련 연구용역 1단계의 첫 번째는 2001년의 해외 거주 위안부 실태조사로, 1995년에 발간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의 내용을 심화시킨 것이다. 5회에 걸쳐 무한뿐 아니라 흑룡강성 동녕과 그 인근 지역, 길림성 춘화와 장춘, 연길, 산둥성 청도, 베이징, 상해, 운남성 곤명과 보산, 요녕성 심양과 청원, 영구, 산둥성 유산에 이르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김순옥, 이광자, 이수단, 박서운, 박옥선, 배삼엽, 이귀녀, 하군자, 백넙데기, 김의경, 현명숙, 박우덕, 최양순, 박대임, 총 14명의 증언을 수록하였다. 1990년대 초부터 태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노수복, 일본 오키나와에 거주했던 배봉기 등에 주목하여 1994년부터 해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던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현지 조사를 추진했다. 이 연구사업은 목적을 다음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 첫째는 새로운 피해자 발굴을 통해 한국보다 더 열악한 생활환경에서 가족이나 자식이 없이, 병이 들어도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정비에 기여하는 것이다.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에 증언이 실렸던 홍애진, 이용화, 조용옥, 박막달, 임금아, 홍강림이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

고 이미 사망하여 해외 거주 피해자 지원과 고국 방문이 주요 과제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일본과의 협상에서 우의를 확보할 수 있고,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미국 소송 등의 자료로 활용되어 재판에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³⁴⁾

2001년의 두 번째 연구용역은 한국 정부에 피해자로 등록된 203명, 표본 수 192명에 대한 과거 피해 경험과 현재 생활을 개괄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피해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북한 피해자 혹은 다른 동남아시아 피해자 관련 비교연구를 위한 통계 자료집 작성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설문지는 89개의 큰 문항과 250여 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의 증언집, 피해자의 정부신고서, 생활실태조사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³⁵⁾ 이 자료집은 동원 전 식민지 하층민으로서의 개인의 상황과 동원 과정에서의 강제성, 위안소에서의 반 인권적, 비인도적인 ‘위안부 경험’, 귀환 이후에도 이어지는 삶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2002년에 제출된 증언 자료집 『그 말을 어디다 할꼬』이다. 이 증언 자료집에는 2001년에 발간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5권에 이어 새로이 채록한 강순자, 석순희, 정서운, 김말순, 김화자, 공점엽, 노청자, 이옥선, 김봉이, 박송자, 박화자, 김정덕, 김순악, 길원옥, 최용순, 장점돌, 총 16명의 증언이 실렸다. 피해자의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성요소는 생년월일, 고향, 학벌, 형제 및 가족 관계, 동원 상황, 이동 경로 및 이동 수단, 위안소 생활, 위안소에서 나오게 된 정황, 귀국 시기 및 경로, 결혼 및 가족 형성, 생계 활동, 질병의 종류, 현재 생활이다. 피해자들의 삶의 경험은 각기 다르고 특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집의 성격을 갖추기 위해 기본적인 이야기 틀을

34) 여성부·한국정신대 연구소, 『해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 조사집』, 2001, pp. 3-6.

3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 인권 센터·여성부,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2001.

제시할 수밖에 없었고 7개월의 단기 작업으로 피해자들의 삶의 경험들이 위안소 생활을 중심으로 유형화되고 말았다³⁶⁾고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 증언 자료집은 2004년에 발간된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의 기초가 되었다.

2006년에는 오키나와 거주 한국인 피해자 배봉기의 삶을 『빨간 기와집』³⁷⁾으로 엮어낸 가와타 후미코(川田文子)로부터 1978년 2월 6일과 2월 15일에 오키나와 나하시(那覇市)의 배봉기 자택에서 이루어진 면담의 녹음자료를 제공받아 배봉기 증언 연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연구보고서는 1991년 김학순 공개 증언 이전인 1975년에 피해 생존자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배봉기의 증언이 해방 이후 30여 년 만에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수면위로 떠오르게 했고 위안부 문제를 역사로 재현하는 주요한 모티브가 되었으며, 그의 경험과 기억 속에는 한일 과거사 이외에 미일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 그리고 남북문제까지 다양한 이데올로기가 상충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배봉기의 증언은 일본 침략전쟁의 말로, 위안부 피해와 상처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가난하고 무기력한 한 여성이 성적으로 어떻게 유린되며 피폐해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³⁸⁾

여가부의 구술·증언 연구사업은 2012년부터 2단계에 접어들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일본

36) 여성부, 『그 말을 어디다 할꼬-일본군·위안부 증언자료집』, 2002, pp. 7-11.

37) 川田文子, 『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筑摩書房, 1987. 이 책은 1992년에 한우정 번역 『조선에서 온 종군위안부 이야기 빨간 기와집』으로 출간되었으며, 2014년에는 오근영 번역으로 『빨간 기와집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로 새롭게 출간되었다(가와타 후미코 저, 한우정 역, 『조선에서 온 종군위안부 이야기 빨간 기와집』, 매일경제신문사, 1992; 가와타 후미코 저, 오근영 역, 『빨간 기와집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 꿈교출판사, 2014). 일본에서도 2020년에 오키나와전쟁과 전쟁 후 오키나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 등 젠더연구를 하고 있는 미야기 하루미(宮城晴美)의 해설로 신판이 출간되었다(川田文子 著, 宮城晴美 解説, 『新版 赤瓦の家』, 高文研, 2020).

38) 여성가족부,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2006. pp. 7-12.

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관리 사업)은 위안부 관련 자료의 전수 조사와 신규 조사, 그리고 분류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자료 수집과 연구사업을 통합하여 장기에 걸쳐 진행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수요시위³⁹⁾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권에 관한 한일 간의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2011년 8월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⁴⁰⁾ 한일 간 미청산 과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또한 1,000차를 넘긴 수요시위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국제 사회에서도 전개되면서 한일 양국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위안부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을 결성하였으며 향후 외교적 대응과 정책 수립을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사료 조사와 연구, 조사와 연구 결과의 공개와 공유의 확산이 요구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관리 사업〉의 핵심 중 하나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자료의 디지털화와 DB화인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된 2단계 사업에서는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구술 녹취록과 테이프 음성 녹음본을 디지털화 한 후 보정작업을 한 파일로 구성하는 작업과 구술 채록이 진행되었다. 2단계에 이루어진 이들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

39) 1992년 1월 8일 수요일에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매주 수요일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등 문제 해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요구하며 개최되었다. 수요시위는 2011년 12월 14일 1,000차를 맞이하여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각지에서의 연대시위로 이어졌으며 2022년 11월 2일 현재 1,568차에 이르렀다.

40) 2006년 7월, 생존하는 109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약 5년 만인 2011년 8월 30일에 나온 판결이다(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홈페이지 <https://kyeol.kr/ko/node/183>).

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2014년에는 북한 소재 위안부 피해자인 박영심, 신낙천, 박창룡, 최효순, 김옥석, 오응록, 김계순, 라명숙, 전영진, 고원식, 박수만, 김종섭, 총 12명의 구술이 채록, 해제되었다. 이 작업은 김영과 안자코 유카 등이 참여한 2차에 걸친 북한 현지 조사에서 수집된 구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03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양, 라남, 방진에서 실시되었고 2차 조사는 2005년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라남, 회령에서 이루어졌다. 구술자는 북한의 지방 인민위원회에서 인선했으며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강제동원 관련 피해 구술도 포함되어있고, 각 인터뷰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다. 두 번의 조사와 북한 위안소에 대한 내용은 2012년에 출간된 『군대와 성폭력 : 한반도의 20세기』에 수록⁴¹⁾되어있으며 구술 부분은 <201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관리 사업> 보고서 중 <북한 소재 일본군 ‘위안부’ 녹취록 해제집>의 형태로 실린 것이다. 이 결과 보고서는 제한공개로 되어있다.⁴²⁾

한편 2015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관리 사업>외에 구술·증언과 관련하여 개별 사업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조사 및 분석> 사업이 발주되어 진행되었다.⁴³⁾ 이 사업은 윤정옥, 강정숙, 김문숙, 김주완, 김혜원, 송도자, 신혜수, 안이정선, 양미강, 양순임, 여순주, 윤영애, 이경희, 이미경, 정진성, 총 15명을 대상으로 구술 조사와, 윤정옥과 와다 하루키(和田春樹)의 특별 면담 녹취를 추진

41) 김영, 안자코 유카, 「함경북도의 군사도시와 ‘위안소’·‘유곽」, 송연옥, 김영 편저,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4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사료 조사·발굴 및 체계적 분류관리 사업” 보고서 IV. 북한 소재 일본군 ‘위안부’ 녹취록 해제집 - 제한 공개자료-, 2015.

43)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2015.

하였다.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과정을 역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된 이 사업의 결과보고서에는 운동 초기 단계의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위안부 피해 인식 및 관련 자료의 상황이 잘 나타나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한계 속에서 위안부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전개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닌 활동가·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구술 조사 분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연구에는 일본 정부 및 우익들이 피해자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공격하고 2014년에 고노담화⁴⁴⁾의 검증 결과를 발표⁴⁵⁾한 것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44) 1990년 1월,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윤정옥 교수의 위안부 취재기는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를 수면 위로 부상시켰다. 그리고 6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일본사회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정부위원의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업무로서 위안부의 강제 연행은 없었다. 고인의 이야기 등에서도 민간업자가 위안부 같은 사람을 군과 함께 데리고 다닌 듯해 실태 조사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위안부 생존자의 오랜 침묵을 깨뜨렸다. 김학순의 증언은 위안부와 위안부제도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또한 1992년 1월,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대(中央大) 교수가 오카베 나오자부로(岡部直三郎) 북지나파견군참모장의 통첩 등 군 관여를 증명하는 자료를 발표하자 일본 정부는 본격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1992년 7월 일본 정부가 방위청의 70건, 외무성의 25건 등 위안부 관련 자료가 총127건 발견되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조사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일자 제2차 조사가 실시되어 한국인 위안부 16명에 대한 면접 조사와 함께 위안부 실태에 대한 증언이 수집되었다. 1993년 8월 4일, 제2차 조사 결과와 더불어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고노담화이다.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담당했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고 게다가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것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위안소에서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의 괴로운 것이었다’는 내용의 고노담화는 위안부제도의 강제성과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였다(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47권 제5호, 2013, p. 417).

45) 위안소 설치와 위안부 동원에 군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 이후 일본의 역대 내각은 고노담화의 계승을 표명해 왔다. 고노담화를 부정하는 주장도 담화 발표 직후부터 제기되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4년 6월 2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고노담화 작성 경위를 검증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교섭의 경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반영되어 있다. 또한 여가부가 2013년부터 추진한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⁴⁶⁾도 영향을 미쳐 위안부 피해 관련 원자료의 수집과 발굴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연구자인지 활동가인지, 국제활동을 주로 했는지 지역활동을 주로 했는지에 따라 질문지의 세부 내용은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 질문지에 준해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결과보고서에 실려 있는 질문 사항이다.

-
- 발표한 것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고노담화를 수정해야한다는 고노담화 수정론이 이어지고 있다. 검증 대상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위안부 문제 관련 한국 정부와의 교섭 경위, 둘째 고노담화 문안 조정 과정, 셋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여부, 넷째 피해자 증언 청취 경위 및 의의, 다섯째 국민기금 설립 배경 및 실시 과정이다. 아베 내각은 검증 결과로, 첫째 초기부터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교섭하면서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 강구, 둘째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측과 문안을 조정, 셋째 일련의 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강제연행’은 확인할 수 없었음, 넷째 피해자 증언 청취는 한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의례적인 성격이 강함, 증언 청취 전에 담화의 원안을 작성, 다섯째 기금은 한국 정부의 동의하에 추진되어 피해자 61명에게 기금(1인당 500만 엔) 지급, 등을 발표했다(남상구, 「고노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호, 2014, p. 444, p. 459).
- 46)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종료되었다. 이후 2015년 5월 한국의 6개 위안부 운동 단체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네덜란드 8개국 14개 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연대위원회>를 결성하여 2016년 5월말에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목소리>를 등재 신청했다. 마지막에는 영국 런던의 전쟁박물관도 공동등재자로 합류하여 모두 15개 주체가 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은 4개 단체가 위안부를 ‘일본군의 공창제도에 종사한 여성’으로 정의하고 위안부는 결코 ‘성노예’가 아니라는 <위안부와 일본군의 규율에 관한 문서>를 등재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심사의 투명성을 주장하며 의견이 다른 복수 신청이 있을 경우는 양자의 대화를 촉구하도록 주장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양자의 신청이 보류되게 되었다. 현재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정부만이 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신청물에 반대가 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기한 대화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9/1263/page/0? 産経ニュース 2017년 「慰安婦性奴隷登録阻止へ激闘!ユネスコ、第2R突入でこれからが勝負」 <https://www.sankei.com/world/news/171201/wor1712010002-n1.html>).

-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경과, 초기 활동가 네트워크에 관해 말씀해주시시오.
-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알고 있던 사전 정보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접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 한국의 피해 상황에서 유난히 두드러지는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의 착종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생존자와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과 할머니들의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피해자와의 갈등, 인터뷰 시 어려웠던 점 등에 대해 말씀해주시시오.
- ‘위안부’ 운동을 둘러싸고 민족주의/여성주의 논쟁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해주시시오.
-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현재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나갈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고노담화나 국민기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현재 이에 대해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00년 여성법정 준비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아 여성 연대활동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일본, 필리핀 연대 과정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어려움은 없었는지, 식민지성 및 ‘천황’ 기소를 둘러싼 일본 여성활동가와 한국 활동가의 갈등은 없었는지요?
- 초기 운동과 지금의 운동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인의 삶에서 ‘위안부’ 문제란 무엇입니까?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에 참여한 해은 지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요?

이 질문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드러난 운동의 한계에 대한 인식,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에 대한 평가, 정신대와 위안부 용어 사용의 문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의 갈등, 중앙 중심 운동의 문제, 소통과 연대의 문제 등 지금까지 공론화되지 못하거나 논의가 불충분했던 문제

들에 대해 묻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고 하겠다.

15인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구술 채록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민족의 수치를 떠벌린다”고 비난했던 민족주의적 가부장제의 한국 사회에서 아무런 지원 없이 어렵게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피해자를 지원해온 초기 활동가·연구자들의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 평가하게 한다. 또한 구술 채록을 통해 그들의 열정과 사명감은 피해당사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것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한 기제였다는 것,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운동이 전략적으로 민족주의에 의거하게 된 것은 타당했지만 인정을 획득하고 국제 사회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거나 해결 방식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획일적이고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나타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

또한 운동의 지향점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나 역사 정의의 회복이냐에 따라 고노담화와 국민기금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는 것, 역사 정의의 회복이 운동의 최종 목표인 경우에는 고노담화와 국민기금 이후 운동에서 반복적으로 민족주의로 회귀하며 피해자나 위안부 문제보다 운동 자체가 목적화되어 가는 것도 엿보인다. 운동의 중앙 중심, 엘리트주의, 계서화의 문제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 운동 전반에 걸쳐 지적되어온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특기하고 싶은 것은 위안부와 정신대 용어 사용의 한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다. 활동가·연구가의 구술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위안부라는 용어를 알지 못했다는 것,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는 동원은 처녀공출과 정신대로 언어화되었다는 것이다. 즉 정신대가 여성의 강제동원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고 정신대 하위에 근로정신대와 위안부가 나뉘어 위치한 개념지도가 드러난다. 따라서 운동 초기 한국 사회에

서는 위안부=정신대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때의 정신대는 상위개념으로서의 정신대를 지칭하기 때문이다. 군인·군속과 같이 군사동원의 대상이었던 군 위안부와 노무동원의 대상이었던 정신대가 서로 다른 동원체계 하에 구분되어 있던 일본과는 용어 사용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다르다고 하겠다.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 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의 결과는 총 385쪽의 공개용 보고서와 구술 전체를 채록한 총 952쪽의 비공개 보고서 2종류로 정리되었다. 이로써 2012년부터 진행된 정신대 연구소 소장 피해자 증언녹취본의 전문 채록과 디지털화를 끝내고 구술·증언 연구사업의 2단계가 완료되었다.

다음은 2016년부터의 3단계 연구용역의 내용 검토이다. 3단계의 구술·증언 관련 연구용역의 목표는 2단계의 구술·증언 DB화를 토대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016년에는 여가부의 e-역사관에 탑재된 37명의 피해자 증언을 해제하는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다.⁴⁷⁾ 대상자 37명은 다음과 같다. 김영실, 김학순, 리상옥, 최용순(가명)/유희남, 김봉이(가명)/최선순, 박차순, 김의경, 정서운, 박송자(가명), 박화자(가명), 김영숙, 문필기, 김순옥, 박서운, 길원옥, 공점엽, 황금주, 김순악, 김말순(가명)/강일출, 이수단, 김정덕(가명)/박순희, 곽금녀, 로현화, 이옥선, 장점돌, 이용수, 이남이(훈할머니), 박두리, 강순자(가명)/임정자, 강길순, 김화자(가명)/김분이, 박영심, 석순희(가명)/안점순, 문옥주, 노청자, 현병숙이다. 신고등록 시 가명을 사용했던 피해자들이 본명을 밝히게 되면서 가명과 본명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피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서 진행된 증언이어서 기억의 착오와 각지의 증언집회 등에서 증언이 반복되면서 증언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기도 하는

47)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료 조사 및 D/B화 사업 보고서 II.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정리 자료집』, 2016.

데,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들이 증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억의 착오와 증언 사이의 불일치를 최대한 보정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업 방식은 우선 피해자의 증언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로서 구술이 채록된 맥락, 피해자와 면담자의 관계, 위안부 피해를 전후한 피해자의 사정, 현재 상황 등을 검토하였고 해당 증언의 출전과 출전 자료의 성격 또는 의미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그리고 e-역사관에 실린 증언과 여타 자료집에 나온 동일 피해자의 각종 증언, 그리고 관련 역사 자료 등을 교차 분석해 불분명한 부분을 해명하고 오류나 착오 등을 바로잡았다고 한다.⁴⁸⁾

기 출간된 증언집과 여가부 구술·증언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기반하면서도 다양한 자료와 교차 비교하고 사진, 지도를 첨부하여 특히 연도, 지명에서 나타나는 증언 내용의 불명확함을 줄이고 있다. 위안소가 위치했던 곳에 배치된 일본군 부대와 전황, 이동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은 증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대조할 수 있는 사료가 많지 않고, 지명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된 것을 실을 수밖에 없어 해제가 어느 정도 해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해제자에 따라 해제에 질적 차이가 보이는 것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여가부의 구술·증언 연구사업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되고 이후 증언·구술을 포함하여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사업은 2018년에 신설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로 이관되게 되었다. 2017년에는 2016년도 해제 사업의 미 대상자 29명과 새로 추가된 2명, 총 31명의 증언 녹취록에 대한 해제 사업이 2016년 사업의 후속으로 추진되었으나 이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는 비공개로 되어있다.

48) 여성가족부(2016), pp. 1-4.

V. 나오며

지금까지 본 글은 다음 표와 같이 김학순 증언 이후 연구소와 정대협이 발간한 증언집과 여가부의 구술·증언 관련 연구사업의 결과보고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출간된 증언집, 사진집을 대상으로 30년간에 이르는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에 대해 고찰하였다

| 발간 주체 | 연도 | 제목 | 구술·증언자 | 형태 |
|-----------------|------|--------------------------------------|-----------------------------------------------------------------------------------------------|-----|
| 연구소 · 정대협 | 1993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1 | 김학순, 김택진, 이영숙, 하순녀, 오오목, 황금주, 문필기, 이용수, 이옥분, 문옥주, 이순옥, 이상옥, 이득남, 이용녀, 김태선, 박순애, 최명순, 강덕경, 윤두리 | 증언집 |
| | 1997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 진경맹, 박두리, 강무자, 손판임, 김복동, 김분선, 박연이, 김춘자, 배죽간, 최일례, 여복실, 전금화, 최정례, 박순희, 김은진 | |
| | 1999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 훈 할머니, 김소란, 김군자, 김옥주, 김은례, 심달연, 조순덕, 최화선, 황순이, 김팔순, 조남례, 하영이, 신현순, 김유감 | |
| | 2000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 김화선, 김창연, 한옥선, 김영자, 최갑순, 정윤홍, 윤순만, 김복동, 안법순 | |
| | 2001 |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 신경란, 서복순, 김정순, 이금순, 윤애자, 이후남, 하복향, 양정순, 이양근 | |
| 정대협 | 2004 | 일본군'위안부'증언집 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 공점엽, 김화자, 정서운, 강일출, 석순희, 이옥선, 임정자, 노청자, 장점돌, 김봉이, 김순악, 길원옥 | |
| 기독살림 여성회 | 2004 |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 | 김순희, 진화순, 박순례, 최선순, 이양근, 양점순, 오오목 | |
| 시민모임 | 2004 | 역사의 증언 1 | 훈 할머니 | |
| | 2005 | 역사의 증언 2 | 문옥주 | |
| | 2007 | 역사의 증언 3 | 김순악 | |
| | 2008 | 역사의 증언 4 | 조윤옥 | |
| | 2009 | 역사의 증언 5 | 김옥선 | |

| 발간 주체 | 연도 | 제목 | 구술·증언자 | 형태 |
|-----------------|-----------------------------|------------------------------------------------------------------------------------------------------------------------------------------------------------------------------------------------------------------------------------------------------------|------------------------------------------------------------------------------------------------------------------------------------|-----------|
| 연구소 · 정대협 | 1995 |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 홍강림, 홍애진, 하군자, 이봉화, 임금아, 장춘월, 박필연, 백넙데기, 박막달, 정학수 | 조사집 |
| 연구소 | 2003 |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 김순옥, 지돌이, 이광자, 조운옥, 이옥선, 하옥자, 강일출, 문명금, 박옥선, 박서운, 이수단, 이귀녀, 배삼엽, 현병숙, 박우덕, 김의경, 박대임 | |
| 이토 다카시 | 1997 | 중군위안부-남북 중군위안부 27인의 증언 | 강덕경, 강순애, 김경순, 김대일, 김분선, 김순덕, 김영실, 김학순, 노청자, 문옥주, 문필기, 배족간, 심달연, 심미자, 윤순만, 이정생, 이귀분, 이복녀, 이순교, 이양근, 이옥선, 이용녀, 이용주, 최선순, 하순녀, 황금주 등 | 사진집 |
| 안세홍 | 2013 | 겹겹-중국에 남겨진 일본군'위안부'이야기 | 김순옥, 김의경, 박대임, 박서운, 박우덕, 배삼엽, 현병숙 | 연구 보고서 |
| 기독살림 여성회 | 2004 | 전북지역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 | 김순희, 진화순, 박순례, 최선순, 이양근, 양점순, 오오목 | |
| 여가부 | 2001 | 해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조사집 | 김순옥, 이광자, 이수단, 박서운, 박옥선, 배삼엽, 이귀녀, 하군자, 백넙데기, 김의경, 현병숙, 박우덕, 최양순, 박대임 | |
| | | 일본군 '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 | | |
| | 2002 | 그 말을 어디다 할꼬 | 강순자, 석순희, 정서운, 김말순, 김화자, 공점엽, 노청자, 이옥선, 김봉이, 박송자, 박화자, 김정덕, 김순악, 길원옥, 최용순, 장점돌 | |
| | 2006 |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 배봉기 | |
| | 2015 | 북한 소재 일본군 '위안부' 녹취록 해제집 | 박영심, 신낙천, 박창룡, 최효순, 김옥석, 오응록, 김계순, 라명숙, 전영진, 고원식, 박수만, 김종섭 | |
| |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 윤정옥, 강정숙, 김문숙, 김주완, 김혜원, 송도자, 신혜수, 안이정선, 양미강, 양순임, 여순주, 윤영애, 이경희, 이미경, 정진성 | |
| 2016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술자료 재 정리 자료집 | 김영실, 김학순, 리상옥, 최용순 (가명)/유희남, 김봉이(가명)/최선순, 박차순, 김의경, 정서운, 박송자(가명), 박화자(가명), 김영숙, 문필기, 김순옥, 박서운, 길원옥, 공점엽, 황금주, 김순악, 김말순 (가명)/강일출, 이수단, 김정덕(가명)/박순희, 광금녀, 로현화, 이옥선, 장점돌, 이용수, 이남이(혼할머니), 박두리, 강순자(가명)/임정자, 강길순, 김화자(가명)/김분이, 박영심, 석순희(가명)/안점순, 문옥주, 노청자, 현병숙 | | |

고찰한 결과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구술·증언 관련 연구 주체가 정대협과 연구소 중심에서 지역의 운동단체, 피해자 지원단체로, 개인으로 다양화되었고 2001년 여가부 설립 이후에는 국가기관이 구술·증언 관련 연구의 주요 발주자가 되었다. 이러한 주체의 변화와 더불어 구술·증언을 마주하는 관점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즉 위안부 피해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 피해로, 피식민지 조선의 피해로 인식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일관계, 한반도를 초월한 보편적 여성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여성주의, 평화주의 등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또한 연구의 방법론에서도 결여된 위안부 문제 관련 사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증주의와 사료의 공백을 메우는 피해 입증의 증거 자료로서 위안부 구술·증언을 정초하는 경험주의적 문기에서 피해자의 개성과 증언의 다의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주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듣기로 전환되어 왔다. 따라서 위안부 구술·증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피해자의 전생애에 걸쳐 한 시기였던 위안소에서 피해 상태에서 귀국해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가부장제 한국 사회에서의 삶과 그 삶을 살아낸 강한 생명력과 의지로 깊어져 왔다.

구술·증언 연구는 조사연구자의 열정과 헌신, 침묵을 깨고 말하기 시작한 피해자의 용기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종군위안부 : 남북의 종군위안부 27인의 증언』과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시리즈,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본군·위안부' 증언·통계 자료집』은 위안부 피해의 전체상뿐 아니라, 증언자들의 귀국 이후 조사 당시에 이르는 삶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과 『겹겹-중국에 남겨진 일본군·위안부'이야기』는 귀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삶과 생활의 실태를 이해하게 하고, 『오카나와의 배봉기 이야기』는 전쟁의 참상과 피해의 상처

를 극명하게 나타내면서도 일본을 국가로 인식하는 피해자의 다성적이고 다의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구술·증언 연구는 한국 피해자뿐 아니라 해외 거주 피해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역 활동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는 증언집은 처음 출간된 지 약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비판에 대해 고민하며 발전해왔다.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4권의 새로운 시도는 여가부의 2002년의 새로운 구술·증언 연구사업으로 이어졌고, 지역의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증언집 출간에 방법론적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했다. 『전북지역 일본군‘위안부’ 생존자의 이야기』와 『역사의 증언』 시리즈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증언자들의 ‘위안부 경험’이 아닌 귀국 이후의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증언자들의 결혼, 아이, 여자로서의 행복한 삶에 대한 동경과 정부에 등록신고 하게 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생활고, 신고 후 겪어야 했던 가정불화, 그 결과 가족과 소원해지고 고립된, 고독한 상황이 잘 나타나있다. 또한 귀국 후에도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못해 병고에 시달리고 있고 ‘위안부 경험’이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하며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힘들었던 어려움을 알게 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물개성적이고 정형화된 피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의 개성을 지닌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회인정을 획득하고 지역 사회와 관계맺음을 해나가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셋째는 지역의 지원단체들의 증언집과 여가부의 증언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구술·증언 연구를 위한 1차 자료가 상당히 축적되었다. 특히 여가부가 추진한 방대한 양의 녹취록 원문의 채록과 디지털화는 기존의 증언집에서 사상되었던 증언자의 생애를 복원하고 열린 해석을 위해 기여할 귀중한 자료이다.

넷째는 여가부의 구술·증언 연구 사업을 통해 발간된 증언 자료집과 신고등록 시의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군 자료, 일본 측 선행연구 등 다양한 자료와 대조하며 증언 해제의 질적 향상을 꾀했다. 이로써 각 분야의 연구 심화는 구술·증언의 공백이나 모호함, 증언 간의 불일치 등 증언의 불완전성이 증언의 진위 문제로 귀결되지 않게 하는 기본임을 인식시켰다.

다섯째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이 20년 이상 경과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아닌 활동가, 운동가들의 구술·증언 연구도 이루어져 운동의 역사와 성과, 한계를 되짚어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구술·증언 연구의 다양화와 저변 확대는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활동가와 운동가의 인식을 파악하게 하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역시 과제는 남는다. 첫째는 이벤트성 사업의 추진이다. 광복절, 3.1절, 기림의날 등을 기해 단발성 행사의 성과를 내기 위해 단기간에 무리하게 구술·증언 연구를 구상하고 추진해왔다. 연구의 일관성과 장기적 계획에 기반한 심도 있는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하겠다. 단발성의 성과 위주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연구를 축적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의 증언에서 “일본군·위안부”의 증언으로, 문기에서 듣기로,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집단의 증언에서 개인의 생애사로 증언집의 인식과 방법론은 변화해왔지만 여전히 설문지와 자료의 해석, 증언의 연대기 구성과 해제에 나타나는 피해자상의 정형화와 물리력에 의한 강제연행의 주장이 미치는 영향은 견고하다. 그것은 구술·증언에 대해 사료의 공백을 메우고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역사 사료로서의 의미 부여가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고함은 피해자를 분단시키고 증언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또한 구술·증언에 대

해 여전히 이러한 의미 부여는 구술 증언 연구의 심화와 다양화에는 제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초기 구술·증언의 조사연구에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참여했던 것에 비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특정 학문 분야의 소수에 구술·증언 연구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언자가 다의적이고 다층적인 주체로서 드러나는 증언의 재현, 위안부로 동원되는 과정이나 위안소에서의 체험에 국한되지 않는 증언자들의 일생의 이야기 듣기를 하고자 했던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제4권의 시도는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으로 계승되어 피해자의 구술·증언을 오랫동안 구속했던 강제성의 입증과 진위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구술·증언이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생애사적 접근을 통해 새롭게 구축되어 간 것과는 달리 여가부의 구술·증언 사업은 국민기금이나 일본 우익의 주장,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일본의 고노 담화 검증이나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등 정치적 차원의 대응에 치우쳐 사료로서의 구술·증언으로서의 자리매김이 강화되어 갔다.

이제 피해 구술·증언과 자료는 집대성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 새로운 구술·증언의 발굴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축적된 구술·증언을 대상으로 학문 분과별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그와 더불어 학제간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도 현재 비공개 처리되어있는 여가부의 구술·증언 연구사업의 결과는 공개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가부의 위안부 구술·증언 관련 연구의 2단계에서는 증언 전체의 채록과 디지털화가 추진되었음에도 연구 결과물이 비공개 상태로 되어 있어 접근할 수가 없다. 여가부는 저작권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공적 재원이 투입된 공공데이터로서의 역할의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구술·증언을 바탕으로 한 위안부 문제의 재현과 창작, 미진한 기타 분야의 구술·증언 연구라는 학문 분야 간 불균형은 지속될 것이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2년 12월 5일

논문 심사일 : 2022년 12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12월 11일

참고문헌

- 가와타 후미코 저·오근영 역, 『빨간 기와집 일본군 위안부가 된 한국 여성 이야기』, 꿈교출판사, 2014.
- 가와타 후미코 저·한우정 역, 『조선에서 온 종군위안부 이야기 빨간 기와집』, 매일경제신문사, 1992.
- 기독교살림여성회, 『전북지역 일본군‘위안부’생존자의 이야기』, 봉천, 2004.
-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여성학논집』 30집 1호, 2013.
- 김영·안자코 유카, 「함경북도의 군사도시와 ‘위안소’·‘유곽」, 송연옥·김영 편저, 『군대와 성폭력 :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2012.
- 남상구, 「고노담화 수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일관계사연구』 49호, 2014.
- 모리카와 마치코, 『버마전선 일본군위안부 문옥주』(역사의 증언 2), 아름다운 사람들, 2005.
- 안세홍, 『겹겹-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위안부’이야기』, 서해문집, 2013.
- 안이정선, 『가고싶은 고향을 내 발로 걸어 못가고: 일본군‘위안부’ 조윤옥』(역사의 증언 3), 아름다운 사람들, 2007.
- 양현아, 「증언과 역사쓰기-한국인 ‘군 위안부’의 주체성 재현」, 『사회와역사』 60집 1호, 2001.
- 양현아, 「증언을 통해 본 ‘군위안부’들의 포스트식민의 상흔(Trauma)」, 『한국여성학』 22권 3호, 2006.
- 윤명숙,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이학사, 2015.
- 여성가족부, 『오키나와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봉기 증언』, 2006.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14년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사료 조사·발

- 굴 및 체계적 분류관리 사업” 보고서 IV.북한 소재 일본군 ‘위안부’
 녹취록 해제집 - 제한공개자료-, 2015.
- 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운동 초기 활동가·연구자에 대한 구술
 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 2015.
- 여성부, 『그 말을 어디다 할꼬-일본군 ‘위안부’ 증언자료집』, 2002.
- 여성부·한국정신대 연구소, 『해외 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 조사집』, 2001.
- 이토 다카시 저·장창종 역, 『중군위안부 : 남북 중군위안부 27인의 증언』, 눈
 빛, 1997.
- 이지영, 「일본 사회의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담론의 고찰」, 『한국정치학회
 보』 47권 제5호, 2013.
- 정신대연구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
 위안부들 50년 후의 증언』, 한울, 1995.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 강제로 끌려간 일
 본군위안부 혼 할머니』(역사의 증언 1), 아름다운 사람들, 2004.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김순악 내 속은 아무도 모
 르다카이』(역사의 증언 4), 도서출판 일일사, 2008.
-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어무이 가슴에
 못 박을라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옥선 증언 채록집』(역사의 증
 언 5), 도서출판 춤, 2009.
- 정희진, 「‘위안부 누드’의 지배 에로티시즘의 정치학」,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교양인, 2005.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 여성 인권 센터·여성부, 『일본군 ‘위
 안부’ 증언·통계자료집』, 2001.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연구회편, 『증언집 I 강제로 끌려간 조선

- 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회 엮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 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엮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 한울, 1999.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 위원회 증언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풀빛, 2000.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연구소,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총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5』, 풀빛, 2001.
- 한국정신대연구소 엮음,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2003.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일본군'위안부'증언집 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도서출판 여성과 인권, 2004.
- 川田文子, 『赤瓦の家—朝鮮から来た従軍慰安婦』, 筑摩書房, 1987.
- 川田文子 著·宮城晴美 解説, 『新版 赤瓦の家』, 高文研, 2020.
- 戦争と女性への暴力日本ネットワーク, 『女性国際戦犯のすべて—「慰安婦」被害と加害責任』,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2006.
- 高崎宗司, 『“半島女子勤労挺身隊”について』, 『慰安婦』問題調査報告・1999』, 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 1999.

胡澎, 『戦時体制下日本の女性団体』, こぶし書房, 2018.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웹진 결 홈페이지

<https://kyeol.kr/ko/node/183> (검색일: 2022년 11월 5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https://womenandwar.net/kr/visionnmission/> (검색일: 2022년 11월 5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9/1263/
page/0?](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79/1263/page/0?) (검색일: 2022년 11월 5일)

産経ニュース 「慰安婦性奴隷'登録阻止へ激闘! ユネスコ、第2 R突入でこれからが勝負」 [https://www.sankei.com/world/news/171201/
wor1712010002-n1.html](https://www.sankei.com/world/news/171201/wor1712010002-n1.html) (검색일: 2022년 11월 5일)

デジタル記念館「慰安婦問題とアジア女性基金」

<https://apjif.org/data/wada.comfort%20women.pdf> (검색일: 2022년
11월 5일)

Abstract

A Review on the Oral and Testament Researche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Korea

Lee Jiyoung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 process by reviewing the oral and testament studie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for about 30 years since Kim Hak-soon's public testimony in 1991. The subjects of the review are the reports on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oral and testament of Comfort Women victims by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testimony books produced by various actor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oral and testament researches of Comfort Women victims have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due to the courage of the victims who broke the silence and the passion and dedication of the investigative researchers. First, it provides basic data to understand not only the trauma of Comfort Women but also the their lives after returning country. Second, it makes us understanding that the victims did not have an individualized and stereotyped image of victimization, but rather communicated with local residents as subjects with individual personalities, gaining social recognition, and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community. Third, through the publication of testimonial books and the digitization of testimony materials, the primary data of oral and testimonial have been accumulated considerably. It is a valuable resource that will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and open interpretation of the life of the

witness that was conceived in the original testimonies. Meanwhile, challenges remain. First, in order to achieve one-off events such as Independence Day, and Memorial Day, oral and testimonial research has been conceived and promo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We should allow research to accumulate in the long term rather than a one-off project. The second is the firmness of the impact of the formalization of the victim and the claim of forced arrest by physical force. This Firmness can be a constraint on various oral and testament studies. Now, the victim statements and testimonies have reached a level where they can be assessed as comprehensive. In order to deepen oral and testimony research, the results of the reports on research projects by the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ich is currently closed to the public, should be made public.

key words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Oral and Testimony Research, Testimony books, Life History